광주 국제도시 비상 기틀 마련

U대회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직위 설립 법적·재정적 뒷받침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할 U대회 지원법이 제정돼 광주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29일 국회본회의에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약칭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통과됐다. U대회 지원법은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94이 찬성, 여야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U대회 준비·개최사업을 진행할 조직위가 출범할 수 있게 됐으며, 대회 준비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도 이뤄지게 됐다.

개정법률안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광주하계U대회 조직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구성하는 '국제경기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조항은 ▲국·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기념 주화·우표 발행 ▲택지 분양 사업 허용 ▲U대회 휘장· 마스코트 등의 배타적 사용 등이다.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 시설과 선수, 임원, 보도진, 관람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 테러·안전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테러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U대회 지원법이 제정돼 대회 준비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오는 2015년 8월께 열리며 전세계 170개국 2만5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北으로 가는 연탄 5만장 29일 오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부천지부가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성탄절 모금을 통해 마련한 연탄 5만장을 실은 25t 트럭 8대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 불만땐 '1372'로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1372번을 사용하는 전국적인 소비자상담 네트워크가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한 소비자상담센터의 시범서비스가 내년 1월4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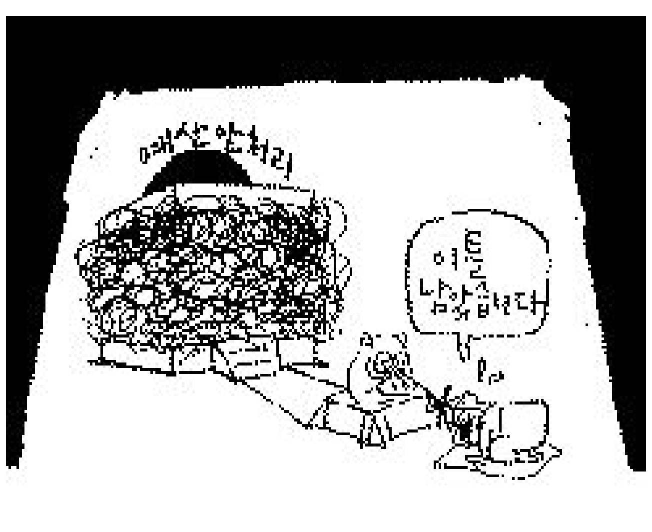
소비자상담센터는 현재 전국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8개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16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소비자상담원 200여명을 단일 전화번호로 네트워크화한 것이다.

소비자상담센터는 또 소비자상담포털(www.ccn.go.kr)을 통해서도 24시간 인터넷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정보 이외에도 구매가이드나 상담피해주의보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고사라도 지내야 할까보다

지역 경제계·4개 대학 총동창회

"유동성 위기 금호 살려달라"

정부·주채권단에 해결책 마련 호소

지역 경제계와 주요 대학 동창회 등은 29일 대우건설 풋백옵션 만기연장 등 금호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와 채권단에 호소했다.

광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목포상의, 순천·광양상의, 여수상의 등 광주·전남 지역 4개 상의는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상공인 호소문'을 공동발표하고 "금호그룹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대우건설 매각협상 뿐만 아니라 금호그룹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상의는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장, 정당 대표 등에게도 전달했다.

호소문에서 이들은 "금호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에도 대우건설 매각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면서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채권단, 재무적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이날 "금호그룹의 회생을 위해 대우건설 풋백옵션 만기연장 등 정부와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광주대·조선대·호남대·전남대 등 지역 4개 대학 총동창회도 성명서를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대우건설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협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도 1만3천명 이상의 지역 인재들이 각 지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지역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막대하다"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풋백옵션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권 위기가 가져올 지역의 경제, 사회적 파장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청와대가 풋백옵션 기한 연장 등과 같은 유동성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건의했다.

/채희종·김지을 기자 chae@

금호산업 오늘 이사회 개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이 30일 오후 3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29일 "자회사인 금호아시아나플라자의 지급 보증 수용 여부에 관한 논의를 위해 내일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지분의 매각이 진행 중인 베트남 금호아시아나플라자의 운영 과정에서 금호산업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용할 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외에 다른 안건은 상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매각의 책임을 지는 데다가 대우건설 매각도 지연되고 있어 이사회에서는 대우건설 매각 지연에 따른 후속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역 등 편의시설 모유 수유시설 의무화

앞으로 지하철역 등의 여객시설에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 시설에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포함시켰다.

현행 법령은 여객시설 등에 엘리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유 수유시설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전까지 모유수유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국토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지침을 제정해 운영해 왔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 제도는 시설물이나 도로 등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이나 이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무장애 환경'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연합뉴스

나주 송죽리 동백나무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천연기념물 됐다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와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 나무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이날 '나주 송죽리 금사정 동백나무'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 등 전통나무 2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천연기념물 제515호 금사정 동백나무는 나주 왕곡면 송죽리에 있는 전통나무로 수령은 500년으로 추정된다. 조선 중종 때 조광조를 구명(救命)하던 성균관 유생 11명이 낙향해 후일을 기약하며 금사정(錦社亭)을 짓고 변치 않는 절개의 상징으로 이 나무를 심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나무는 높이 6m, 뿌리 부근 둘레 2.4m로, 현재까지 알려진 동백나무 중 가장 굵고 크며 모양새도 아름답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천연기념물 제516호 나주 상방리 호랑가시나무는 나주시 공산면 상방리에 있는 수령 250년으로 추정되는 나무다. 높이는 19.5m, 가슴높이 둘레는 2.3m로 호랑가시나무 가운데 보기 드물게 큰 편이다.

/최권일기자 cki@

訃告

權永烈 大夫人 忠州 池氏 甲禮께서 2009年 12月 29日 11時 別世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